

■ 제주연구원, 2019년 기준 도내 읍·면·동 인구 분석했더니...

9개 읍면-7개 동 인구소멸 위험 직면

추자면은 인구소멸위험지수 0.16으로 '고위험' 연구원 "일자리와 주거·교육지원 등 확대해야"

제주도내 9개 읍·면지역과 7개 동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고대호 연구위원은 23일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내 읍·면·동지역 단위에서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내 읍·면·동지역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역(인구소멸위험지수)중 소멸위험집단 단계(0.2-0.5 미만)지역은 한경면(0.30)·일도1동(0.34)·구좌읍(0.37)·남원

읍(0.38)·우도면(0.39)·성산읍(0.39)·중앙동(0.39)·송산동(0.40)·영천동(0.41)·정방동(0.43)·표선면(0.44)·천지동(0.45)·한림읍(0.46)·효돈동(0.47)·대정읍(0.48)으로 나타났다. 또 소멸고위험 지역(0.2 미만)은 추자면(0.16)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 연구위원은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1순위 지역으로 추자면·한경면·일도1동·구좌읍·우도면·남원읍·송산동·영천동·성산읍·효돈동·중앙동·정방동·천지동·에래동·표선면·한림읍을 꼽았다.

2순위 지역으로 안덕면·대정읍·용담1동·건입동·용담2동·삼도2동·조천읍·이도1동·삼도1동을 선정했다.

이러한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방안으로 ▷권역 정착지원센터 설치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 일자리·주거·교육(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고대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핵심생산인구 및 고령인구를 고려한 별도의 인구지표를 개발해 '제주지역 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며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주거·교육(보육) 지원 사업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서 이뤄질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착 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이 필요한 정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체계화해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인 제주 동부 읍·면 권역, 제주 서부 읍·면 권역, 제주시 구도심 권역, 서귀포시 구도심 권역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고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대호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대학교 온라인 졸업식... 포토존 추억살기 2021년 제주대학교 학위수여식이 23일 비대면으로 열린 가운데 캠퍼스 내 포토존 잔디밭에서 졸업생과 가족 및 지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수면제 이용 절도 행각 30대 정역 3년6개월 선고

수면제를 이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오(3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1시14분쯤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내 한 업체 사무실에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OTP카드를 절취한 뒤 업체 계좌에서 자신의 도박용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업체 여직원에게 절취편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여론조사 결과 수용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즉각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야와 국토부, 도정, 도의회, 그리고 찬·반 의견을 냈던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성기자

"당신의 나쁜 행동, CCTV에 딱 걸렸어"

관제센터 모니터링원 최근 3년간 222건 적발

제주에 CCTV 설치가 늘면서 범죄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관제 중 범죄현장을 발견, 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최근 3년간 222건

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56건, 절도 38건 등이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1시50분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영업을 끝낸 가판대에 보관 중인 고구마와 버섯 등 농산물을 훔친 용의자가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게 발각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3시20분쯤에도 서귀포시 서귀동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물품을 절취하려는 용의자가 CCTV에 포착돼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막은 해당 모니터 요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향후 CCTV관제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절도범 등 검거 실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수도권 방문 지인과 접촉 지난 18일부터 유증상 보여

이틀 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제주 562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아울러 총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달에만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562번 확

진자는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 없었다. 수도권을 방문했던 지인 및 가족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562번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코막힘과 두통 증상이 나타났으며, 22일 오후 2시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23일 최종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562번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강대희기자

수입산 양파 국산 둔감 특별단속

농관원 "올들어 양파 수입 전년과 비교해 4.5배 늘어"

최근 양파 수입이 급증하며 외국산 양파를 국산양파로 바꾸는 '망갈이'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간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며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관리관리원은 양파 수입 급증에 따라 수입양파 유통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에서 유통되는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산 등의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초까지 실시된다.

수입 양파는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1만4673ha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하며, 10a당 생산량도 1168kg으로 26.7% 줄었

다. 이에 따라 올 1-2월 국내산 양파 소매가격은 상품 kg당 3314원으로 전년 동기(1750원) 대비 89.3% 급등했다.

올들어 2월 17일까지 중국, 일본, 미국에서 수입된 양파는 1만3715t에 이른다. 전년 동기(3027t)보다 4.5배 많은 양이어서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국산 양파 도매가격은 kg당 1527원이다.

농관원은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청과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양파의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문미숙기자

"체불임금 달라"... 60대 근로자 고공시위

60대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다.

23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오동동 소재 연립주택 공사장 옥상 비계에 60대 남성이 올라 시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사진

이 남성은 해당 공사장의 형틀작업 노동자로, 1억원 이상의 밀린 임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는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에 에어매트를 깔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송은범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론,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02-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모

유 라 조 생 1,2,3년생
감 명 1,3,4년생
탱 자 모 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 전 온 주 1년생
천 해 향 4,5년생
황 금 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론(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